

21세기 문화와 개혁 신앙

-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 화해와 일치와 삶과 개혁 신앙

이 성 구

(고려신대원)

1. 20세기 문화의 반성

새로운 천년기를 맞으면서 수많은 소위 미래학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 사회와 교회의 미래에 관하여 예언자적 메시지를 던져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는 어쩔 수 없이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교차된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기가 '새롭고 찬란한 테크노피아의 이상향'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기가 '인류 문명의 쇠망'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한다.¹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더 분명히 해 보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평가 작업을 거쳐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하며, 그와 함께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미래를 말하려 할 때 과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진보를 이룩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무한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고,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찬란한 기술 문명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운송과 통신의 발달은 지구를 어디든지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하나의 촌락으로 만들었고, 우주 개발, 생명 공학의 발달은 인류를 심지어 '신의 자리'를 넘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찬란한 세계만이 20세기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

¹ Cf. 전광식, "전환기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통합 연구* 36(2000.5), pp. 51-72.

난 세기는 이런 진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많이 경험하였다. 인류의 종말을 고할 것 같은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인류를 괴롭혔고,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연의 개발을 통하여 문화의 발전을 구가하던 것이 어느새 자연의 재앙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지나친 기술화는 필요 이상의 기계화를 이루어 지나친 에너지 고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론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이 필연적으로 빚어낼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여져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언제든지 대량 실업, 경제 몰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하나의 대기업이 쓰러지면 당장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사회를 견잡을 수 없는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간 세계의 위기와 함께 인간 본질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점증하고 있다. 포악하기 그지없는 범죄가 증가하고, 악은 그 끝을 모르고 도를 더해가고 있다.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과 같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20세기의 상황을 전광석 교수는 '획득과 상실'의 측면에서 평가하면서 20세기는 물질적 진보와 기술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해 넉넉함과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으나 반대로 정신의 빈곤, 인간의 물화(物化), 획일화, 윤리적 무정부화, 극단적 이기주의화에 따른 공동체 파괴 현상이 두러지게 되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²

이러한 20세기 시대적 상황을 반성하며 나타난 것이 소위 '제3의 길'(The third way)에 대한 논의였다. 영국의 중도 좌파 정부를 이끄는 토니 블레어의 고

² 상계서, 53f. 그는 일곱 가지로 '획득과 상실'의 측면을 대비시키고 있다. ① 물질적 진보의 획득/ 정신의 빈곤 ② 편리하고 재미있는 도회적 삶과 문화의 획득/ 원초적 동심의 세계와 고향의 상실 ③ 기술인과 생산자로서의 능력 획득/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의 모습 상실 ④ 정보와 세계화로 인한 세계 단일 문명의 획득/ 민족과 전통의 고유성 상실 ⑤ 산업화에 의한 고품질 상품 획득/ 자연과 환경의 파괴 ⑥ 청소년의 의식과 자율성 신장/ 의식의 변질과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윤리 의식 상실 ⑦ 민주화와 자유, 자본주의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의 획득/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숭배, 향락 문화, 빈부 격차 심화에 의한 공동체 의식의 상실 등. 이러한 대비는 오늘의 현상을 잘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문으로 일하고 있는 현대 사회학계 최고의 거목으로 불리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 석학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은 20세기 말 구라파 정치계의 새로운 좌표로 자리잡을 정도였다.³ 북유럽에서 시작된 사회 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역사의 승리라고 해도 좋을 복지 국가 제도를 서구라파 일원에 정착시켰다. 그러나 누적되는 국가의 재정 적자,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 시민 사회 기능의 약화, 국민의 노동 의욕 감소, 국가 경쟁력 하락 등으로 세기말에 이르자 어느 새 복지 국가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 공격의 목표로 변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과 효율,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얻게 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드디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탈냉전 시대를 맞으면서 기술과 자본의 힘을 앞세운 신 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어가자, 시장 경제 논리와 시민적 연대 및 정의의 원리를 결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쌍방 부정의 방법을 통하여,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것,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것,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것,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닌 것, 자유 무역도 보호 무역도 아닌 것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세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로서 세계가 놀랄만한 경이롭고 눈부신 물질 문화의 발전을 보인 특별한 시기였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돌진적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의 집중화와 함께 경제 권력의 재벌 독점화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 경제력의 집중화는 한 때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되며 세계 경제에 하나의 모범으로 거론되기까지 하였으나, 이제는 거품과 부패, 비효율의 근원으로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고질적인 좌우 이념의 대립 개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극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증오와 적대감에 기반을 둔 이념 대결 풍조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지역 대결의 잘못된 관행도 설 자리가 없으며, 노사간의 갈등과 반목, 세대나 남녀간의 간극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의약 분업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 불신의 벽이 생각보다 높아 소모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사실

³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1998

을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우리 사회도 결국 제3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생각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방안은 첫째,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 운동의 때문에 시민 사회 안에 성장한 젊고 개혁적인 세력을 통하여 국가 중심 시대나 재벌 중심 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길을 강화 하는 것과, 동양 사상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중용 철학의 재조명을 통하여 양극 단을 포용하는 합리적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⁴

2. 21세기 문화의 흐름

그렇다면 21세기는 어떤 문화적 흐름을 보여 줄 것인가? 전광식은 영혼의 불멸, 신이나 내세와 같은 초월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부인하는 현대인들의 삶은 두 가지 대표적인 인생관, 즉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⁵ 이러한 분석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상일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즐기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장대한 역사에 비하면 여전히 인간의 생(生)은 너무 짧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의 생활은 지루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인생에 대한 성찰은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인생의 본질을 논하기 마련인 많은 문학인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이 자주 '인생은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인생을 즐기자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은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여 심심한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들을 수없이 제공하고 있다. 식도락, 성 문화, 스포츠, 연극, 영화, 컴퓨터 오락, 댄스, 음악 등 수많은 놀 거리는 인간을 'homo ludens', 즉 유희하는 인간으로 몰아가고 있다. 쾌락의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쾌락으로 이끌어 줄 재원이 부족한 것 뿐이라는 분석은⁶ 지나치게 시니컬하게 들리기

⁴ 한상진, 박찬욱 역, 『제 3의 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 3의 길, 21f.

⁵ 전광식, 앞의 책 60.

⁶ 전광식, 61.

도 하지만 딱히 부인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쾌락주의는 결국 개인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안겨 주고, 사회에는 향락 문화를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를 초월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갈수록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유흥 산업이 폭발적으로 번창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문화적 병리 현상은 무엇보다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왜 사느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고, 결국 허무주의 아니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간이 먼저 맛보는 것이 허무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길이 쾌락의 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21세기의 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 텔레비전을 통한 노자사상 강의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김용옥은 ‘화해’를 21세기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는 그야말로 분쟁의 시대였다.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대량 살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고,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세계인의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역으로 지방화(localization)의 바람도 거세게 짝이 없다. 자연의 파괴가 두드러지고 문제가 된 것도 지난 20세기의 사건이다. 세계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자연 파괴는 이제 환경적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 사회의 발전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부국과 빈국의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종교간의 갈등 역시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언뜻 보기에 종교라는 것이 없어서 생기는 불선(不善)보다는, 있어서 생기는 불선(不善)이 더 큰 것이라는 지적은 결코 그냥 들어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지식은 본래 인간의 삶에서 나온 것이요, 따라서 인간의 삶을 살찌게 한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가 삶을 괴롭히고, 삶을 위협하고, 노예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젊은이들에게 지식의 습득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안겨 주고 있다. 가령 이성(理性)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는 일에 투자해야 하는 수많은 시간이, 많은 젊은이와 지식인을 압박해 왔음

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식이 삶과 대적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지식이 권위 체계로서 삶 위에 군림해 왔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21세기에도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고 오늘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압박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나아가 오늘날 '생명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지식은 그 도덕성의 문제로 인류를 더 큰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김용옥은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인류의 과제를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화해', '종교와 종교간의 화해', '지식과 삶의 화해' 등 세 가지로 대별한다.⁷ 김용옥은 종교를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파악한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저지른 모든 끔찍한 대규모 죄악상은 거의 99.9%가 종교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아랍, 코소보, 보스니아, 시에라레온, 라이베리아, 인도, 파키스탄, 도쿄 지하철 독극물 살인 등등 우리 시대의 모든 비극, 인간이 개인적으로 저지를래야 저지를 수 없는 수도 없는 흉악한 대규모 악들이 모두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에 별로 할 말이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고대 사회에서 모든 제의식(祭儀式)이 종교 때문에 생겨났다. 종교 때문에 인간을 희생하는 제물(human sacrifice)이 생겨나고, 사제와 비사제간의 계급적 불평등이 생겨났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⁸.

이러한 종교가 가지는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종교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무리 종교가 악한 요소를 가졌다고 주장하여도, 강한 것 같으나 한없이 약하고, 혈기왕성하지만 때로 한없이 가냘프고 감상적이며, 사회를 이루고 있으나 늘 고독하며,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면서도 비합리적 감성에 자주 호소하는 인간의 이중 구조는 종교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가 악한 면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난 선의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평소에 상상할 수 없던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종교적 신앙의 힘이다.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하고, 죄 의식을 씻어주며, 모든 인간을 사랑과 화합으로 인도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자의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생명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와 이념을 제공하는 등 엄청난 선의 가능성과 그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종교 이해를 토대로 김용옥은 종교가 서로 갈등을 나타내는 이유를 지역주의의 편협한 문화적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기

⁷ 김용옥, 『노자와 21세기(상)』, 통나무, 1999, p.26.

⁸ 위의 책, p.48.

는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종교도 지역주의적 관습 체계로부터 해방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공통적 이해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종교와 종교의 갈등은 사실상 종교 조직과 종교 조직간의 이해의 상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것은 대부분 터무니 없는 편견과 몰지각, 선입견과 몰이해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고등 종교는 '자기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자기 개방을 통하여 종교간의 화평과 공존을 이루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⁹.

3. 21세기와 창조신학

그런데 이와 같은 19세기 노자 사상에 바탕을 둔 김용옥의 화해 요청은 결국 인간이 그 해결의 중심에 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비판, 자기 개방을 통한 종교간의 화해라는 말이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틀을 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지구촌을 노래하는 세계화가 운위되는 가운데 오히려 소수 민족의 자기 주장이 높아지며 인종간, 지역간 국지적 전쟁은 끊임 줄을 모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개방적 세계 시장 원리가 운위되는 가운데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강대국이 무차별적으로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작은 개체들, 그 개체들의 집합체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일방적 욕구 충족의 방법인 허무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하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의 의미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국 창조의 시점, 창조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흔히 우리는 구약이 자연의 파괴와 종교간의 갈등을 예사롭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창세기 1장 28절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파괴를 허용하신 것으로, 그래서 자연의 파괴는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부여받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다(신 7:2). 이유인즉 그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⁹ 위의 책, 55.

었다. 가나안 전투는 사실상 종교적 투쟁이었고, 따라서 이로 인한 피흘림이 심하였을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구약은 자연을 숭배하던 자연 종교적 전통 문화를 바꾸어 자연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한 점이 인정되고, 종교적 차이를 전쟁에 의한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였다는 비판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3.1 구약의 창조 기사

과연 구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가능한가? 구약은 과연 화해보다는 정복과 파괴를 주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신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특히 창조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창세기 1장 26절-28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창조신학의 뼈대를 형성하는 창세기의 자료, 저작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과, 이사야서 후반부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창조신학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자하는 복잡한 가설을 살피는 데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다. 최근 본문 연구 경향에서도 보여 주듯,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피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두려 한다. 인간 창조의 과정과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28절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창세기가 열리면서 시작된 매우 정교한 창조에 대한 기록은 알고 보면 이 부분을 향하여 달려온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성경 연구는 역사비평학적 관점에서 주어진 본문의 저자와 연대, 그에 따른 신학적 입장의 차이 문제가 우선 순위를 차지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비교적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고완(D.E. Gowan)같은 학자도 창세기 1장이 2-3장을 기록한 J 기자와는 다

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포로기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P 기자의 뉘새를 찾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하고자 하는 본문이 이미 완성된 정경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본문 사이의 단절, 상충, 차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각 본문이 전체 정경의 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선 생각하는, 소위 공시적 연구 방법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질문을 야기해 왔다.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조지신학에서 증거 본문으로 자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이 본문이 삼위일체의 교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 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부여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이 본문이 오히려 이러한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개발 만능 사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근거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개발을 자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근거로 창세기 본문을 연구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뿐이다.

창조 기사의 절정을 이루는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3.2 창조자 하나님 — 혼자이시면서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닷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끝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고 창조의 마지막 과제를 설정하신다.

וַיֹּאמְרוּ אֱלֹ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וַיְרַדּוּ בְדָגַת הַיָּם וּבְעוֹף הַשָּׁמַיִם
וּבְבְהֵמָה וּבְכָל-הָאָרֶץ וּבְכָל-הָרֶמֶשׂ הָרֶמֶשׂ עַל-הָאָרֶץ:

여기 나타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주로 나타난 이론은 소위 ‘royal we’, 혹은 ‘deliberative we’ 라는 견해다. ‘짐이 국가다’

¹⁰ Donald E. Gowan, *Genesis 1-11: From Eden to Babel*, ITC, 1988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은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나' 보다는 '우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예사로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신중히 심사숙고한 결과를 말할 때 개인의 의견보다는 전체의 생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약 본문 중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용법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설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보다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장엄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복수(the plural of fullness)' 라는 설명이다.¹¹ 하나님께서 장엄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 굳이 하나님의 장엄함이 강조되어야 할 상황도 아니고, 장엄함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전혀 읽을 수 없다. 그저 담담히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주장이 삼위일체 교리적 해석이다. 여기서 '우리' 는 삼위 하나님을 말한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약에서 유추한 교리적 개념인 삼위일체 사상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¹².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주장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명은 본문이 그리고 있는 '하늘의 어전 회의 (heavenly court)' 라는 주장이다.¹³ 실제로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른 영물들과 회의를 여는 듯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와 욥기 1-2장, 이사야 6장 등은 바로 그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יהוה אלהי צבאות)' 을 거느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¹¹ Keil, Dillmann, Driver 등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엄 복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법이 없다는 이론이 제기되면서 이 해석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Wenham, 28.

¹² The Epistle of Barnabas, Justin Martyr가 이 복수를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말한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어렵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Cf. R. McL. Wilson, "The Early History of Exegesis of Gen 1:28," *Studia Patristica* 1 (1957), 420-37. see Wenham, 27. 그러나 뒤에 Clines의 견해나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에 대한 언급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기사를 고려하면 3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¹³ Philo 이래로 유대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어전 회의, 즉 천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고 믿어왔다. 현대의 주석가들 가운데 Skinner, von Rad, Zimmerli, Kline, Mettinger, Gispén, Day등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창세기 주석을 쓴 Gordon J. Wenham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Genesis 1-15*, WBC, 27.

¹⁴ 참고, 왕상 22:19; 암 3:13; 4:13; 5:16 등.

여기서 다시 한 번 본문을 주의하여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אלהים אחד(하나님)에서 주어인 ‘하나님’은 분명히 동사(דבר)의 단수형을 취하고 있다: ‘하나님 그가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주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다. 그리고는 27절에서 하나님은 ‘홀로’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אדם) 그의 형상(צלמיו) 대로 창조하셨다(ברא).’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주(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다신론의 문화 가운데서 철저하게 한 분이심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현장에서 여러 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여럿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복수의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본문은 앞서 설명한 ‘왕의 복수’, ‘심사숙고의 복수’, ‘충만의 복수’, 특히 ‘삼위일체의 복수’ 이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담이 어떻게 ‘우리 중’, 곧 삼위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늘의 어전 회의의 광경이 가장 어울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협의(協議)의 우리(consultative we)’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¹⁵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 분이며, 다른 영물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¹⁶.

딱 잘라 한가지로 설명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말로 이 복수형을 설명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이면서 동시에 여럿 중의 하나로 자신을 표

¹⁵ Gowan, 위의 책, 27.

¹⁶ Wenham은 성경에 사람을 천사에 비교하거나,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천사가 협력하는 일을 볼 수 없으므로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 묘사되었고(창18:2), ארבע 동사가 단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인간 창조에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전에 모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라고 내린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배경으로 욥기 38:4, 7을 예로 든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אלהים כלבני’ 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서 콜브네이 엘로힘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천사들이 ‘우리 중’ 하나에 포함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시편 8:5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며 인간의 위치를 분명하게 한다.

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⁷. 유일하신 하나님은 시작부터 여럿으로 나타나셨다. 그 때까지 존재한 다신론적 흔적이라는 주장이 사라지는 지금, 이 복수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3 인간 창조의 원리 - 하나이면서 여럿

〈27절〉 וַיִּבְרָא אֱלֹהִים אֶת-הָאָדָם בְּצַלְמוֹ
בְּצַלְמֵם אֱלֹהִים בָּרָא אֹתוֹ
זָכָר וּנְקֵבָה בָּרָא אֹתָם:

본문은 인간의 창조를 말하면서 동사 בָּרָא bara' 를 세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 정확히 번역해 보자.

‘하나님이 그 아담 adam을 그의 형상(צֶלֶם)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한 절에서 בָּרָא bara' 동사를 세 번이나 동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의 창조 행위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 사건 가운데 인간 창조가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와 함께 한번도 복수형을 취한 적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אָדָם이 여기서는 분명히 집합 명사로 쓰이고 있다. 즉, 인간 아담은 시작부터 전체로, 複數로 존재했다는 말이다. ‘그를 וְאִשָּׁא’ 창조했다고 하고서는 곧 바로 그들을, אֹתָם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상세하게 풀어 쓴 인간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창조의 선언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였고, 그들은 둘이면서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가 ‘그들’이요, ‘그들’이 바로 ‘그’였다. 모두 אֱלֹהִים 속에 처음부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¹⁷ D.J.A. Clines는 이 복수가 하나님의 신격 속에 포함된 복수성 때문에 사용되었다고 해석한다. 즉,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셨고 활동하셨던 그의 영(靈)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 “The Image of God in Man,” *TB 19*(1968), 53-103. 그러나 오직 그의 영 his Spirit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Wenham이 ‘이 해석은 창 1:2의 אֱלֹהִים의 해석이 ‘바람 wind’이 된다면 그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언어이다. 한 사람인데 둘이며 둘인데 하나인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질서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은 창조된 모든 것이 좋았으나 하나님은 아담이 독 처(獨處)하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다고 기술한다. 인간 창조의 설계도에 이미 둘로 되어 있었으나 처음 아담은 혼자의 모습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로 규정되었다. 아담은 자기 속에 이미 존재하는 또 다른 자기를 구체화하도록 인도되었다. 꿈결 같은 순간에 ‘돕는 배필’로 나타난 자는 ‘אִשָּׁה רַבָּה’ 라 불렸다 (창 2:18,20). ‘에펠 רַבָּה’ 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¹⁸. ‘커넥도 אִשָּׁה’ 는 영어 표현으로 ‘corresponding to him’, 즉 ‘그에 상응하는, 대등한 관계로 일치하는’ 의미를 갖는다. 약자로서 겨우 강자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이미 ‘아담’ 속에 있던 꼭 같은 또 하나의 아담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인 셈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얼굴을 내밀 때부터 사실은 둘이었다는 것이다. 혼자였으나 여럿이었고, 그 여럿은 대등한 관계로 맺어지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인간은 원래 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하나님 자신도 혼자이면서 여럿일 뿐 아니라, 인간도 처음부터 혼자이면서 여럿이었다. 사실상 완전한 혼자는 어느 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서 타자(他者)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4 인간,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인간은 유독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강조하고 있다. 생물은 그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조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상실하였는가? 이것은 매우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의

¹⁸ 구약에서 총 21번 사용, 그 중 15번.

주제가 되어왔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이나 본질의 일부를 부여받았다면 도대체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논쟁은 지루하게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레니우스(Irenaeus d.202년경) 시대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위의 논쟁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쉽지 않은 ‘형상’의 정체성 논쟁을 일일이 따라 다닐 수는 없는 형편이다. 다만 과연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原義, *justitia originalis*)와 일치시키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일부, 혹은 전부가 상실된 것으로 이해했다. 루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상실된 것이고, 루터에 있어서 그 형상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상실되지 않았던 인간 본래의 그 무엇이었으나 타락과 함께 본질이 파괴, 또는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어 제임스 보이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성, 도덕성, 영성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¹⁹.

그러나 ‘형상 צֶלֶם ’이나 ‘모양 דְמוּת ’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자주 우상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²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김슨의 주장은²¹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은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떤 것도 진정한 형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형상이든지²²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은 אֱלֹהִים 동사를 중심으로 세 문장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 첫 문장의 ‘그의 형상’은 다음 절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그 다음의 ‘남자와 여자’와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다른 아닌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된다. 남자와 여자의 복수로

¹⁹ 제임스 보이스, 『창세기 강해 1』, 121f.

²⁰ 형상- 민 33:52; 왕하 11:18; 암 5:26; 모양 절 1장에서 10회, 사 40:18-19 등.

²¹ John C.L. Gibson, *Genesis*, 1981, 74ff.

²² 물론 여기서 형상을 가리키는 단어는 צֶלֶם 와는 다른 דְמוּת 이다. 그러나 같은 image의 뜻을 담고 있다.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이다. 그와 함께 '사람'이라 번역된 아담 אָדָם 은 '그'라는 단수와 '그들'이라는 복수로 교차되며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으나 알고 보니 두 사람이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본다는 것은 인간이 본래는 '양성(兩性)'을 가졌다는 주장을 나오게 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양성으로 이해된 흔적이 없다. 이것은 인간 역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인간을 다른 어떤 동물과는 달리(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지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결국 본문 28절로 이어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할 일이 28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주와 생물을 책임질 존재를 당신 대신에 땅 위에 두시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적 속성을 가리킨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실 구약은 어디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부여받은 것으로 유추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의 주석으로 일컬어지는 시편 8편은 인간의 아름다움, 그 우수성에 탄성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타고났다는 생각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이다.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그 '목적'을 더 관심하고 있다는 폰 라드의 지적은²³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정답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신적 속성론'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몫일 수밖에 없는 '신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본문에의 접근은 인간을 '사명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부각시킨다. 인간은 스스로 이 우주의 통치권을 창출해낸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을 듣는 셈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²³ G. vonRad, *Genesis*, 57.

사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책임 있게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구잡이식 개발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황폐함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저히 환경을 유린하려 하였는가? 창조 당시의 세계, 오늘과 같은 도구들이 없던 세상을 다스림이 황폐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일을 행하면서 마구잡이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윗 분의 뜻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생육과 번성, 충만과 다스림의 사명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 일은 조화와 균형, 화합과 일치의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결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지 못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개혁주의 신앙을 외치는 장로교회, 그 가운데서도 보수적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교회들이 쉽게 분열하고, 한 번 분열한 후에는 일치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교회의 일치를 부르짖으면 마치 개혁주의 신학을 포기하고 신학의 혼합화에 동조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농후하다²⁴. 지난 주간 열린 예장 합동 개혁 교단은 1999년도에 7개 교단이 합동을 이룰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또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과연 교회 일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개혁 신학을 주창하는 신학자들은 화해와 일치에 관한 개혁주의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왜곡된 개혁주의 신앙 양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주의의 중요한 원리가 오직

²⁴ 허순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어디로?」, 기독교보 485(2000.8.19); 같은 저자, 「고신목회자협의회는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보 487호 (2000.9.2).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사실과 믿음대신 교권, 은혜 대신 자기 아집과 전통의 고수, 은혜보다는 비방, 분열의 모습을 더 자주 드러내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창세기에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은 혼자 있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사셔야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우리를 불러 교제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바울은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고 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원리는 쉽게 하나님은 홀로 계실 수 없는 분이심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 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적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역시 홀로 있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시작부터 전혀 다른, 또 다른 나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이다.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이다. 다투는 인간상,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일 수 없다. 인간의 불행은 항상 다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창세기 3장부터의 이야기가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던 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이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창조하신 세계를 마땅히 다스리셔야 하는 주인되신 하나님이 위임한 일을 위한 섬김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남은 과제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돌아오라(שוב)’고 외치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여럿이면서 하나로 사시는 하나님, 하나 이면서 여럿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사명이다.